

厥陰의 生理 經脈에 關한 文獻的 考察

姜政秀·成樂箕¹⁾

I. 緒 論

《素問·天元紀大論》에 “陰陽之氣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²⁾라 하여 陰陽이 三陰三陽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陰陽之三世 何謂 曰氣有多少異用也”³⁾라 하여 그 氣의 多少가 같지 않으므로 作用 역시 不同하다고 하였다. 《東醫生理學》에서는 陰陽氣의 多少에 따라 “陰多者를 三陽으로 太陽이라 하고, 次少者를 二陽으로 陽明이라 하며, 又少者를 一陽으로 少陽이라 한다. 陰多者를 三陰으로 太陰이라 하고, 次少者를 二陰으로 少陰이라 하며, 又少者를 一陰으로 厥陰이라 한다.”⁴⁾고 하였다.

厥陰에 對하여 謝는 “心包絡과 肝經의 代名詞”⁵⁾라 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서도 “少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⁶⁾이라 하여 經脈的인 面으로 說明하였고 또한 《素問·陰陽類論》에서는 “三陽爲表 二陰爲裏 一陰至絕作朔晦”⁷⁾, “三陰爲母 二陰爲雌 一陰獨使”⁸⁾라 하여 陰氣가 거의 다하고 陽의 方面으로 向하는 轉化過程의 開始로 說明하고 있다.

《靈樞·九鍼論》에서는 “厥陰多血少氣 …… 刺厥陰出血惡氣”⁹⁾라 하였고 厥陰

- 1)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生理學教室
- 2)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 pp.294-295.
- 3) 上揭書, p.437.
- 4) 大韓東醫生理學會：東醫生理學, p.124.
- 5) 謝觀：東洋醫學大辭典, p.723.
- 6)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 p.39.
- 7) 上揭書, p.475.
- 8) 上揭書, p.475.

은 다시 手足厥陰으로 나눌 수 있는데 手厥陰은 心이 할 일을 代行하는 機關이고 足厥陰은 藏血·散血등 肝이 主管하는 일을 擔當하게 된다.

따라서 人體를 管爲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血의 作用 및 活動 그리고 心包에 대한 研究는 厥陰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厥陰의 重要性에 比하여 具體的인 研究가 未洽하였기에 論者는 《內經》을 中心으로 하여 厥陰의 生理·經脈에 對하여 考察하였다.

Ⅱ. 本 論

第 1 節 厥陰의 生理

1. 厥陰의 概念

厥陰에 對해서는 《內經》을 비롯하여 諸文獻에 記錄되어져 있다.

《素問·陰陽類論》에는 “一陰獨至”¹⁰⁾, “一陰至絕作朔晦”¹¹⁾라 하여 陰氣가 이미 다함을 설명하였다. 厥陰이 一陰이 되는 理由에 對하여 宋¹²⁾은 “厥陰의 厥字의 뜻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림자만 약간 남아있다는 뜻으로, 厥陰이라 하면 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고 그림자만 약간 남아 있는 陰이므로 陰의 數에 들 수 있으나 完全한 陰은 못되고 그렇다고 陽이 될 수도 없으니 이것이 첫째로 陰의 始作이고, 少陰은 初生하는 陰이어서 完全히 陰의 形態를 갖춘 陰이므로 厥陰이 一陰이 되고 少陰이 二陰이 된다”고 하였다.

陽進陰退의 理致로 보면 尹¹³⁾은 “厥陰은 陰이 已盡하여 動하는 것이니 自體는 陽을 生할 段階라 風으로 나타나며, 厥陰은 風으로 定해지고 風은 木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素問·五運行大論》의 “巳亥之上 厥陰主之”¹⁴⁾ 및 地支와 三陰三陽六氣와 相配하여 만들어진 “巳亥厥陰風木”¹⁵⁾과 符合한다. 한편 巳亥를 正化·對化로 나누어 보면 尹¹⁶⁾은 “亥와 巳는 모두 風木이다. 十月의 月建은 亥가

9) 楊維傑：黃帝內經譯解, pp589-590.

10)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 p.475.

11) 上揭書, p.475.

12) 宋点植：醫學輯要, p.92.

13) 尹吉榮：東醫學의 方法論研究, p.285.

14)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 p.313.

15) 金完熙：한의학원리론, p.85.

되며 水令의 孟冬月이 된다. 그런데 水生木하여 水는 木之母가 되므로 亥가 正化가 된다. 巳는 四月의 月建으로 孟夏月에 屬하며 孟冬月과 마주 對하고 있으므로 巳가 對化가 된다.”고 하였다.

厥陰을 巳亥라고 하는 것과 風木이라고 하는 理由에 對하여 韓¹⁷⁾은 “巳亥木의 性質이 『厥』字의 象과 同一한데서 取한 것이다. 亥는 本是 六水였다. 六水속에서 木이 나오려고 하는 象을 보면 아직 堅固한 坎水의 內部에 있다. 木이 바로 亥木이므로 나오려는 뜻만 있고 그 氣가 不及하여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亥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亥木이 發芽하여서 漸漸 자라게 되면 木氣의 特徵을 잃게 되는 그 무렵이 바로 巳木인 것이다. 巳의 數는 二(火)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면 木氣의 機能을 喪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厥陰의 月別配屬

《靈樞·經別》에 “六律建陰陽諸經而合之十二月 十二辰 十二節 十二經水 十二時 十二經者 此五臟六腑所以應天道”¹⁸⁾라 하여 人間은 大自然속에서 生活하면서 自然環境의 變化가 人體에 一定한 影響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脈解》에서는 “厥陰者辰也 三月陽中之陰”¹⁹⁾이라 하였고, 李²⁰⁾는 “十二辰 十二月與經脈의 對應關係又將如何 …… 三月(辰)爲厥陰”이라 하여 厥陰을 三月에 配屬하였다.

《醫學輯要》²¹⁾에서는 厥陰이 辰月(三月)에 配合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厥陰은 三月을 主하니, 三春의 마지막 달로 陰은 거의 다 없어지고 陽의 全盛時期에 들어 있으므로 厥陰이라 하니, 厥陰은 陰이 거의 다 가버렸다는 뜻이다. 草木은 싹이 틀 것은 다 蘇生하고 蟄蟲도 나올 것은 다 나오고, 候鳥도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고, 草木의 津液은 한창 오르는 途中에 있어서 柔軟하고, 天水는 자주 내려서 溪澗에는 流水가 豊富하고 日氣는 和暢해서 이지렁이가 많이 끼고, 天에는 구름이 뭉쳐서 來往함을 볼 수 있다. 晝間은 길고 夜間은 짧아서 朝夕으로 寒氣가 들어오고, 陰雲이甚하면 晝間에도 寒感이 들고 夜間에는 이불을 덮지 아니하면 추워서 견디지 못할 程度의 寒氣가 生한다”

또한 金²²⁾은 “厥陰을 辰月로 나타내는 것은 辰月에는 陰進陽來로 陽中之陰하

16) 尹暢烈 :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p.59.

17)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p.95.

18) 楊維傑 : 黃帝內經譯解, p.147.

19) 王琦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p.231.

20) 李鼎 : “十二辰 及其他”, 上海中醫藥雜誌 84年 5期 p.44.

21) 宋点植編 : 醫學輯要, pp.92-93.

22) 金弘起·姜鎮春 : 內經運氣學正解, p.24.

여 朝夕으로 寒冷한 氣運을 厥陰經證으로 나타낸다”고 하여 厥陰의 月別配屬을 三月과 病證의 關係로 說明하였다.

3. 厥陰과 開闔樞

가. 開闔樞의 概念

宋²³⁾은 《醫學輯要》에서 風寒暑濕의 눈에 보이지 않는 大氣나 눈에 보이는 모든 物體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어서 나가고, 나가는 길이 들어오는 길이 다 막히면 外部의 것은 內部로 들어오지 못하고 內部의 것은 外部로 나가지 못하니 開闔樞는 이 길을 意味하는 것이다. 開는 들어오는 門이 열림을 말하고, 闔은 門이 닫혀서 出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樞는 門의 開闔을 操縱하는 줄짜귀라고 定義하였다.

《鍼灸學辭典》²⁴⁾에는 開闔樞(또는 開闔樞)는 經絡理論中에 三陰三陽經脈의 機能을 說明한 것으로 病證解釋에 있어 特徵이 있으며, 《靈樞·根結》²⁵⁾과 《素問·陰陽離合論》²⁶⁾에 잘 나타나 있다. “關”은 門栓을 指稱하고, “闔”은 門板을 指稱하며, “樞”는 門軸을 指稱한다. “關”字는 後來에 “開”로 誤寫된 것으로 《黃帝內經太素》²⁷⁾卷五에는 여전히 “關”으로 되어 있다. 楊²⁸⁾의 註에는 “門者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二者門闔 主關閉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라 하였고, 王²⁹⁾의 註에서는 “開(關)者 所以司動靜之基 闔者 所以執禁固之權 樞者 所以主動轉之微 由斯殊氣之用 故此三變之也”라고 하였다.

또한 陳³⁰⁾은 《醫學探源》에서 “開闔者 如戶之扉 樞者 扉之轉樞也 舍樞不能開闔 舍開闔不能轉樞 是以三經者 不得相失也 開主外出 闔主內入 樞主內外之間”이라 하여 開闔樞의 概念과 相互關係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李³¹⁾는 開闔樞에 對하여 “이것은 《素問·陰陽離合論》³²⁾에서 基因되는 學說로 《靈樞·根結》篇에서의 開闔樞와 《素問·皮膚論》에서 말한 開闔樞의 理論과 相通點이 있다.”고 하였다.

23) 宋点植編：醫學輯要, p.89.

24) 安徽中醫學院·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辭典, p.275.

25) 楊維傑編：黃帝內經譯解, p.59.

26)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38.

27) 楊上善：黃帝內經太素, p.44.

28) 上揭書, p.44.

29) 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p.92.

30) 陳鼎三：醫學探源, p.21.

31) 李正來：太韓醫學全集 卷一, p.308.

32)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38.

《內經》에 나타난 開闔樞에 對하여 說明한다면 《素問·皮部論》³³⁾에서 “岐伯對曰 陽主外 陰主內”라고 하였는데, 이는 絡은 陽이므로 外를 主하고 經은 陰이기 때문에 內를 主한다는 뜻으로 《靈樞·壽夭剛柔》³⁴⁾에서 말한 “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臟爲陰 六腑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素問·皮部論》³⁵⁾에 “陽明之陽 名曰害蜚 …… 少陽之陽 名曰樞持 …… 太陽之陽 名曰關樞 …… 少陰之陰 名曰樞儒 …… 心主之陰 名曰害肩 …… 太陰之陰 名曰關蠃”이라 하였는데 이는 三陰과 三陽이 關·害(闔)·樞와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靈樞·根結》³⁶⁾篇에서 “不知根結五臟六腑 折關敗樞 開闔而走 陰陽代失不可復取”, “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關 厥陰爲合 少陰爲樞”라고 한 것과 《素問·陰陽離合論》에서 開闔樞라고 한 것이 文字의 表現은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것으로 張³⁷⁾은 “辭異而義同”이라 하였다.

《素問·皮部論》³⁸⁾에 “十二經脈者 皮之部也”라고 하여 十二經絡이 人體의 皮膚에 分布되고 手足의 六經의 上下가 相通되어 있는 것을 말하였으며, 李³⁹⁾는 “關이라는 것은 關鍵과 같으므로 그 變動은 開가 되는 것이요, 闔이라는 것은 門扉와 같으므로 그 變動은 閉가 되는 것이며, 樞라는 것은 戶樞와 같으므로 그 變動이 轉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張이 말한 “辭李而義同”이라 한 것과 같은 見解라 하겠다.

또한 《靈樞·根結》⁴⁰⁾篇에서 “折關敗樞 開闔而走 陰陽代失”이라고 한 것은 根結의 本末 및 臟腑의 陰陽과 淺深의 要를 알지 못해서 疾病을 바르게 治療하지 못한 結果로 危殆한 狀態가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素問·皮部論》⁴¹⁾에서는 “皮有分部 脈有經紀 筋有結絡 骨有度量 其所主生病各異 別其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終”이라 하여 體內的 疾病의 症勢가 밖의 絡脈과 皮膚로 相通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六經의 皮部로써 病의 發生의 區分과 病程의 傳變을 살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臨床的으로 價値가 있다 하겠다.

33)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250.

34) 楊維傑編：黃帝內經譯解, p.68.

35)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250.

36) 楊維傑編：黃帝內經譯釋, pp.58-59.

37) 張介賓編：張氏類經, p.292.

38)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250.

39) 李正來：太韓醫學全集 卷一, p.309.

40) 楊維傑編：黃帝內經譯釋, p.58.

41)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250.

나. 厥陰과 闔

《素問·陰陽離合論》에 “是故三陰之理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⁴²⁾라 하였고, 《靈樞·根結》에서는 “厥陰爲闔 …… 闔折 卽氣絕而喜悲 悲者取之厥陰”⁴³⁾이라 하여 厥陰이 闔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楊⁴⁴⁾은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臟足厥陰脈 主守 神氣出入 通塞 悲樂 故爲闔也”라 하였고, 馬⁴⁵⁾, 張⁴⁶⁾, 《鍼灸學辭典》⁴⁷⁾等에서는 “厥陰爲闔 居陰分之裏也”이라 하였으며, 金⁴⁸⁾, 《中醫大辭典》⁴⁹⁾에서는 太陰과 少陰의 裏面に 있으므로 「厥陰爲闔」이라고 하여 주로 部位로 보아 厥陰이 闔이 됨을 說明하였고, 吳⁵⁰⁾는 “厥陰謂之盡陰 受納絕陰之氣 謂之闔”이라 하였다. 陳⁵¹⁾도 “足厥陰 肝經主藏下焦之陰氣 使血脈潛藏 而精不妄泄 手厥陰心包絡主藏上焦之陰氣 使陰血斂而火不作 故曰厥陰爲闔”이라 하여 手足만 다를 뿐이지 위에서 言及한 醫家들과 같이 陰氣를 받기 때문에 “闔”이 된다고 하였다.

李⁵²⁾는 “肝經과 心包經은 絶陰之氣를 受納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體成分化한 陰氣가 生命活動에 必要한 陽氣로 轉化될 수 있는 狀態로 受納되는 것을 說明한 것으로 생각되니 곧 腎精이 血로 化하여 肝에 보내어지며 水穀之精이 心에서 血로 化하여 心包에 보내져서 比較的 流動性이 큰 體成分으로 貯藏·循環되나 必要時에는 膽氣와 三焦氣에 의하여 活動에너지源인 陽氣로 化하는 過程을 說明한 것으로서 肝·掌·足·指가 血을 받아야 비로소 活動을 시작하고, 血氣는 곧 人體의 精神이며, 安靜時에는 血이 肝으로 돌아가 貯藏된다고 하여 肝·心包經을 通하여 體成分의 動靜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闔의 機能이 失調되면 氣絶하고 喜悲한다고 하여 精神的·肉體的 活動이 不振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血 또는 陰氣가 肝·心包를 通하여 어떻게 他臟腑로 轉化되는가를 說明하고 있다.

李⁵³⁾는 厥陰이 闔이 된다고 하는 것은 肝의 八木인 巽 의 形象이 二陽의 下

42) 上揭書, p.39.

43) 楊維傑編：黃帝內經譯釋, p.60.

44) 楊上善：黃帝內經太素, p.45.

45) 圖書集成 醫部全錄 第一冊, p.4.

46) 張介賓編：張氏類經, p.287.

47) 安徽中醫學院·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辭典, p.275.

48) 金完熙外編：漢醫學辭典, p.176.

49)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編：中醫大辭典, p.291.

50) 吳崑注：內經素問吳注, p.34.

51) 陳鼎三：醫學探源, p.22.

52) 李鏞泰：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代謝 發顯, 東醫生理學會 夏季 學術세미나, pp. 50-51.

에 一陰을 하고 있는데, 이는 陰이 盡하고 陽이 生한 것을 나타낸다. 肝에서는 에너지를 分離 放出하여 全身의 氣化作用으로 發揮케 하지만 언제나 營養素인 그 陰液의 分離가 곧 氣로 化하는 것이므로 그 不足을 豫防하기 위하여 陰을 長養하는 것이며, 그 收斂 下降하려는 陰을 長養함이 곧 闔의 機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단순히 각각 陰陽勢力의 變化로만 說明되는 것이 아니라 陰陽 相互間의 交流가 있으니 《醫學入門·臟腑》⁵⁴⁾에서 陰經의 開는 陽經의 開와, 陰經의 樞는 陽經의 樞와, 陰經의 闔은 陽經의 闔과 각각 相通하여 그 機能을 遂行하는 바 太陰開의 肺는 太陽開의 膀胱과, 脾는 小腸과 相通하고, 少陰樞의 心은 少陽樞의 膽과, 腎은 三焦와 相通하며, 厥陰闔의 心包는 陽明闔의 胃와, 肝은 大腸과 각각 相通하여 陰陽氣의 造化가 이루어지게 된다.

表 I 厥陰爲闔에 關한 諸家의 學說

文獻(或人名)	內 容
黃帝內經	《素問·陰陽離合論》“厥陰爲闔” 《素問·皮部論》“心主之陰 名曰害肩” 《靈樞·根結》“厥陰爲闔……闔折 卽氣絕而 喜悲 悲者取之厥陰”
黃帝內經太素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臟足厥陰脈 主守神 氣出入 通塞悲樂 故爲闔也
馬元臺	厥陰爲一陰 居陰之裏 故爲關之闔
張志聰	厥陰爲兩陰交盡 陰盡而一陽始生
內經素問吳注	厥陰謂之盡陰 受納絕陰之氣 謂之闔
張氏類經	厥陰爲闔 居陰分之裏也
鍼灸學辭典	厥陰居陰分之裏 故爲闔
醫學探源	足厥陰肝經主藏下焦之陰氣 使血脈潛藏 而精 不妄泄 手厥陰心包絡主藏上焦之陰氣 使陰血 斂而火不作 故曰厥陰爲闔
漢醫學概論	太陰과 少陰의 裏面에 있으므로 『厥陰爲闔』이라고 한다.
中醫大辭典	因位于太陰和少陰之裏 故有“厥陰爲闔”

다. “少陰爲樞”와 “厥陰爲樞”에 對한 問題

近年에 와서 몇몇 사람이 三陰經의 開闔樞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였다. 例를 든다면 方⁵⁵⁾, 金⁵⁶⁾은 厥陰이 “樞”가 되고, 少陰은 “闔”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

53) 李正來：東醫要諦眞詮 卷一, pp.307-308.

54) 李挺：醫學入門, p93.

55) 王琦外編：黃帝內經今釋, p.41.

56) 金弘起·姜鎮春：內經雲氣學正解, p.26.

內經》에서 開闔樞理論에 關하여, 主된 것은 經脈循行의 部位·路線 및 經氣의 變化와 角度를 出發點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두가지 側面에서 分析하여 厥陰이 “樞”가 된다는 理論을 提出하였다.

三陰經의 流注順序를 볼 때 《靈樞·逆順肥瘦》57)에 “手之三陰 從臧走手”라 하여 手三陰經 循行의 起點이 모두 胸腹部에서부터 上肢·腋·臂部를 通過하여 手指尖端으로 走向하게 된다. 分布의 次序를 보면 太陰은 前에 있고, 厥陰은 中間에 있으며, 少陰은 後面에 있다. 《靈樞·逆順肥瘦》58)에 “足之三陰 從足走腹”이라 하여 足三陰은 足으로부터 脛을 지나서 腹에 入하여 胸中을 貫通하게 되는데 內踝上 八寸이 境界가 된다. 八寸以下에 經絡이 分布하는 것을 볼 때, 厥陰이 前이 되고, 太陰은 中이 되며, 少陰은 後가 된다. 八寸以上에서는 厥陰과 太陰 二經이 서로 交叉하는 故로 太陰이 前이 되고, 厥陰이 中이 되며, 少陰은 後가 된다.

따라서 手足三陰經의 總括的인 流注方向을 分析하여 보면 厥陰은 대체로 太陰과 少陰의 中間에 位置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첫번째 理由이다. 두번째 理由는 三陰經氣의 多少를 分析해 보면 太陰은 三陰이라 稱하고, 少陰은 二陰이라 稱하며, 厥陰은 一陰이라 稱하므로 厥陰은 陰이 다하고 陽이 始作하는 轉樞의 段階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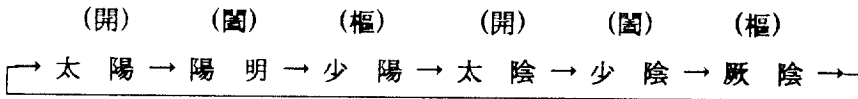


圖 I 三陰三陽과 開闔樞의 關係

위에 나타난 圖 I 을 보면 陽으로부터 陰으로 들어가고, 陰으로부터 陽으로 들어가는 陰陽離合의 關係가 잘 나타나 있다.

4. 厥陰의 氣血多少

一年中 自然에서 水와 氣의 狀況은 三陰三陽이 配屬된 曆數를 基準으로 陰陽을 莫論하고 歲半前은 水多이고, 歲半後는 氣多이다. 즉 太陽·陽明·厥陰은 水多이고, 太陰·少陰·少陽은 氣多이다. 여기에서 水多是 歲半前 즉 陽上之月로 水氣가 生함을 意味하고, 氣多是 歲半後 즉 陰降之月로 寒氣가 生함을 意味한다.59)60)

57) 楊維傑：黃帝內經譯解, p.307.

58) 上揭書, p.307.

59) 宋点植編：醫學輯要, p.95.

陽明의 氣血多少에 對하여 《靈樞·五音五味》⁶¹⁾, 《靈樞·九鍼論》⁶²⁾, 《素問·血氣形志論》⁶³⁾等에 言及되어 있으나, 그 內容이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自然과 相應한다는 觀點에서 보면 《素問·血氣形志論》의 內容이 옳다고 볼 수 있다.

吳⁶⁴⁾는 “諸經之血氣多少 乃天之常數然也”라 하였는 바 각 經脈의 氣血의 多少가 不同하므로 因하여 刺鍼時에 「많은 것은 瀉해도 可能하며, 적은 것은 補해 주어야 한다」는 原則을 갖게 된다.

表II 內經 各 篇의 氣血多少 比較

六 經	血氣形志篇	五 音 五 味	九 鍼 論
太 陽	多 血 少 氣	多 血 少 氣	多 血 少 氣
少 陽	少 血 多 氣	少 血 多 氣	少 血 多 氣
陽 明	多 血 多 氣	多 血 多 氣	多 血 多 氣
太 陰	少 血 多 氣	多 血 少 氣	多 血 少 氣
少 陰	少 血 多 氣	多 血 少 氣	少 血 多 氣
厥 陰	多 血 少 氣	多 血 少 氣	多 血 少 氣

5. 足厥陰이 多血, 手厥陰이 少氣한 理由

厥陰은 多血少氣로 肝과 心包가 配屬되어 있다. 이는 다시 肝은 足厥陰으로 多血을 要하고, 心包는 手厥陰으로 少氣를 要하는 生理機能으로 細分된다.

이에 對하여 宋⁶⁵⁾은 “足厥陰肝은 血을 主해서 藏血하고 散血하므로 多血이라야 마땅하고, 手厥陰心包는 心을 代行하는 君火의 機關이므로 血은 所用이 없고 오직 火만 主하게 되므로 氣를 管掌하게 되나, 少氣인 것은 君火는 火의 政令을 管掌할 뿐이고 이것을 實際로 行使하는 것은 少陽相火이므로 많은 氣가 必要없어서 少氣가 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金⁶⁶⁾은 “足厥陰多血故藏血 手厥陰心包 少氣故熱多 而生津液”이라 하였다.

6. 厥陰의 先後天關係

八卦에 先後天이 있듯이 三陰三陽도 八卦에 配屬되어 있으므로 先後天關係가

60)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 p.127.

61) 楊維傑：黃帝內經譯釋, p.466.

62) 上揭書, p.589.

63) 王琦外編：黃帝內經素問今釋, p.38.

64) 吳崑注：內經素問吳注, p.114.

65) 宋点植編：醫學輯要, p.99.

66) 金弘起·姜眞春：內經運氣學正解, p.26.

顯著해서 陰陽의 差等이 심하게 된다.

三陰三陽을 팔괘의 圖表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圖II)

少 陽	少 陰	陽 明
巽	離	坤
震		兌
艮	坎	乾
厥 陰	太 陽	太 陰

圖II 三陰三陽과 後天八卦圖

《醫學輯要》⁶⁷⁾에 “厥陰은 艮에 屬해서 立春氣를 管掌하므로 六氣中 初氣가 되고 先天이 震이니 震은 春分節이므로 三月에 配屬된다”하였다.

第 2 節 厥陰經脈

人體의 陰陽二氣를 살펴보면 陰氣는 手足 三陰經과 六臟으로 通하고, 陽氣는 手足 三陽經과 六腑로 通한다. 즉 陰經은 臟과 陽經은 腑와 相應한다. 手足의 命名은 臟을 基準으로 陰陽上下 部域에 따라 相應하며, 다만 腑는 그 表裏關係를 따라 臟의 位置에 依하여 相應한다. 例를 들면 三陰經에서 陰盡하여 나타나는 厥陰은 風으로 現象化하여 주관하는 臟인 肝과 肝의 陰陽部域인 下에 該當하는 足厥陰과 相應한다. 한편 風의 中氣인 少陽相火를 主하는 心包가 그 部域인 上에 該當하니 手厥陰經과 相應하게 된다.⁶⁸⁾

1. 足厥陰經

가. 足厥陰經의 流注

《靈樞·經脈》“肝足厥陰之脈 起於大趾叢毛之際 上循足跗上廉 去內踝一寸 上踝八寸 交出太陰之後 上膕內廉 循股陰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挾胃 屬肝 絡膽 上貫膈 布脇肋 循喉嚨 上入頰頰 連目系 上出額額 與督脈會於顛 其支者 從目系下頰裏 環脣內 其支者 復從肝 別貫膈 上注肺”⁶⁹⁾

《靈樞·經別》“足厥陰之正 別跗上 上至毛際 合於少陽 與別俱行 此爲二合也”⁷⁰⁾

67) 宋点植編：醫學輯要, p.100.

68)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 p.130.

69) 楊維傑：黃帝內經譯釋, pp.133-135.

나. 足厥陰經의 職責

足厥陰은 子時에 動해서 亥時까지 藏血하고 散血해서 上으로는 耳目을 밝게 하고 頭髮을 長해서 潤澤하게 하고 眉毛를 아름답게 하고, 下로는 陰器를 強하게 하고 婦人은 子宮을 堅固하게 하고 乳房을 充實하게 하여서 乳汁을 豊富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血이 하는 일은 전부 肝에서 主管하니 身體를 움직이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걷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맡는 등 全部가 血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니, 血이 하는 일은 全部가 肝이 主管하고 肝이 하는 일은 全部가 足厥陰이 한다.⁷¹⁾

다. 足厥陰과 肝

厥陰이 風木으로 木屬肝인 것이 한가지 理由요, 卦象으로 巽爲風이니 巽卦는 厥陰이며 厥陰은 肝이다. 그러나 肝을 卦象으로 表示함에 있어서 一般으로 震卦를 쓰니, 震卦는 厥陰의 氣를 表現한 것이다. 巽卦는 卦象이 震卦와 反對가 되므로 一般에서는 疑訝心을 갖게 된다. 그러나 肝으로 보아서는 巽卦가 適當하므로 《入門·八廓論》에서는 “震小腸 巽肝”으로 되어 있으니 肝屬木으로 巽은 木의 象徵이다.

納甲을 解釋하면 內卦가 丑亥酉니 丑은 太陰土로 木根이 地에 붙어 있음을 表現한 것이요, 亥는 巳亥厥陰風木으로 動해서 風이 生한다는 뜻도 있으나 木氣가 줄기를 통해서 上升함을 表現한 것이요, 酉는 卯酉陽明으로 上은 日光을 받아들이는 뜻도 되나 酉는 西方이요, 人身의 肺에 屬하고 肺는 五藏의 天이니 天을 向해서 成長함을 表現한 것이다.

足厥陰과 肝은 別個의 體로 肝은 有形으로 本이 되고 足厥陰은 無形으로 標가 되어 있으니, 本이라 함은 主가 되어서 靜함을 意味하니 五藏은 근본 靜하고 動하지 아니한다. 動하지 아니하면 造化를 生하지 못하고 標라 함은 客이 되어서 動하고 靜하지 아니함을 意味하니 動하면 造化를 生하므로 肝의 造化는 全部 足厥陰에서 生함을 알 수 있다.

氣血로는 足厥陰은 氣에 屬하고 肝은 血에 屬하며, 陰陽으로 論하면, 足厥陰은 陽이고 肝은 陰이니 陰은 靜하고 動하지 아니하므로 造化를 生하지 못하고 五藏의 造化는 六經에서 生한다.⁷²⁾

70) 上揭書, p.149.

71) 宋点植編 : 醫學輯要, p.124.

72) 宋点植編 : 醫學輯要, pp.124.-127.

2. 手厥陰經

가. 手厥陰經의 流注

《靈樞·經脈》“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其支者 循胸出脇 下腋三寸 上抵腋下 循臑內 行太陰 少陰之間 入肘中 下臂 行兩筋之間 入掌中 循中指 出其端 其支者 別掌中 循小指次指出其端”⁷³⁾

《靈樞·經別》“手心主之正 別下淵腋三寸 入胸中 別屬三焦 出循喉嚨 出耳後 合少陽完骨之下 此爲五合也”⁷⁴⁾

나. 手厥陰의 職責

手厥陰心包는 心을 代行하는 機關이다. 心火는 君火로 動하면 心이 自焚되므로 心은 火之臥字과 하여서 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心君으로 하여금 國政을 管掌하지 못하게 하고, 國內외의 모든 政事를 全部 心包가 代行하니 心包는 政事를 하기 위해서는 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例를 들어 亂暴한 寒水가 心을 犯하게 되면 自身이 代身해서 받고, 絡宮의 領域까지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힘을 다해서 寒水와 鬪爭한다. 그러나 過動하면 影響이 心君에 미치므로 모든 일을 抑制해서 될 수 있는 한 動하지 아니함을 目標로 해서 活動하므로 少氣이다.

手厥陰은 津液을 熱하게 하니 熱한 津液은 心과 腎에는 適當하나 肝과 肺에는 不適當하고 足厥陰이 筋을 主해서 骨을 結束하면 手厥陰은 脈을 主해서 肉을 堅하게 한다. 이런 理致로 足厥陰이 始作하면 手厥陰이 結果를 맺고 手厥陰이 始作하면 足厥陰이 結果를 맺어서 氣와 血이 一進一退로 長短을 맞추어서 서로 調和하므로 五藏이 時節에 따라서 生長化收藏의 攻課를 거두게 된다.⁷⁵⁾

다. 心包에 對하여

“心包絡” 또는 “膻中”이라고도 한다. 心臟의 外面을 감싸는 膜이며, 心臟을 保護하는 作用을 한다. 歷代 醫書에는 心包의 位置와 形態에 對하여 “有形”과 “無形”의 論亂이 있었다. 《靈樞·脹論》⁷⁶⁾에서 “膻中者 心主之宮城也”라 하였고, 《靈樞·經脈》⁷⁷⁾에서는 心包絡에 屬하는 經脈에 對하여 “心主 手厥陰心包絡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 이라 하였으나, 《難經·二十五難》⁷⁸⁾에는 “心主與三

73) 楊維傑 : 黃帝內經譯釋, p.126.

74) 上揭書, p.150.

75) 宋点植編 : 醫學輯要, pp128-130.

76) 楊維傑 : 黃帝內經譯釋, p.

77) 上揭書, p.126.

78) 成樂箕編 : 八十一難經, p.39.

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이라 하여 “有名而無形說”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心包의 機能에 對해서는 歷代 醫家들이 比較的 一致된 見解를 갖고 있었다. 心包絡은 心臟을 保護하는 作用을 하며 外邪가 浸透할 때 먼저 心包에 病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邪客》⁷⁹⁾에 “心者 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于心者 皆在于心包絡”이라 하였고, 《素問·痺論》⁸⁰⁾에서는 “脈痺不已 復感于邪 內舍于心”이라 하였다.

그러나 心包가 “代心受邪”한다는 說은 後代의 醫學者들에게 影響을 미쳐 心臟을 神明을 主管하는 機能이 障礙를 받아 發生하는 病變을 “熱入心包”라 하였다. 이러한 症狀의 名稱들은 現在까지 계속 使用되고 있다.⁸¹⁾

Ⅲ. 結 論

以上으로 三陰三陽中 厥陰의 生理·經脈에 對하여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厥陰은 一陰으로, 陰이 거의 다하고 陽의 方面으로 向하는 轉化過程의 開始를 말한다. 또한 厥陰은 三月에 配屬된다.
2. 厥陰은 陰分의 裏에 屬하므로 “關”이 된다고 하였고, 近來의 몇몇 學者는 “樞”라고 하였으며, 氣血多少에 있어서는 多血少氣하다.
3. 厥陰經은 足厥陰肝經과 手厥陰心包經으로 나누어지고, 足厥陰은 藏血, 散血을 主管하고, 手厥陰은 心臟의 機能을 代行한다.

79) 楊維傑 : 黃帝內經譯釋, pp.494-495.

80) 王琦外編 : 黃帝內經素問今釋, p.206.

81) 朴贊國編譯 : 臟象學, pp.168-169.

參 考 文 獻

1. 金完熙外編譯：漢醫學辭典，서울，成輔社，1983.
2. 金完熙選編：한의학원리론，서울，成輔社，1990.
3. 金弘起·姜眞春：內經運氣學正解，서울，代星文化社，1990.
4. 大韓東醫生理學會編：東醫生理學，서울，慶熙大學校出版局，1993.
5. 朴贊國編譯：臟象論，서울，成輔社，1992.
6. 成樂箕撰：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1982.
7. 宋点植編：醫學輯要，大田，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1990.
8. 尹吉榮：東醫學의 方法論研究，서울，成輔社，1983.
9. 李正來：太韓醫學全集，서울，第一文化社，1989.
10. 李 正來：東醫要諦眞詮，서울，泰昌出版社，1992.
11. 韓東錫：宇宙變化的 原理，서울，杏林出版社，1980.
12. 尹暢烈：運氣와 干支에 關한 研究，慶熙大學校 大學院，1987.
13. 李鏞泰：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代謝 發顯，東醫生理學會 夏季學術 세미나，1990.
14. 圖書集成 醫部全錄，서울，成輔社，1976.
15.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1985.
16. 安徽中醫學院·上海中醫學院編：鍼灸學辭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
17.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
18. 楊維傑編：黃帝內經譯解，서울，成輔社，1980.
19. 吳崑注：內經素問吳注，山東，山東科學技術出版社，1984.
20. 王琦外編：黃帝內經素問今釋，서울，成輔社，1983.
21. 張介賓編：張氏類經，서울，成輔出版社，1982.
22.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編：中醫大辭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23. 陳鼎三：醫學探源，上海，中醫學院出版社，1987.
24. 李鼎：“十二辰”及其他，上海，上海中醫藥雜誌 第5期，1984.